(사)영월박물관협회

영월박물관고을 뉴스레터

YoungWorld 영월 YeongWol

2015년 4월 30일 제13호 영월박물관협회 편집 간행

강원도 영월군 영월동로 1121-15 TEL: 033-372-6828 FAX: 033-372-6827 www.ywmuseum.com /yema2013@naver.com

■ (사)영월박물관협회와 부리아트공화국 국립중앙박물관과의 MOU 체결

(사)영월박물관협회(회장 오석환)는 지난 4월 26일 단종제 기간 동안 영월을 방문한 러시아연방 부리아트공화국 국립중앙박물관(관장 타치아나 보로노예바 Tatiana Boronoeva)과 조선민화박물관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사)영월박물관협회장 및 회원관 관장, 부리아트공화국 울란우데시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MOU)을 통하여 (사)영월박물관협회와 부리아트 국립중앙박물관 간의 전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상호협력증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파트너십과 상호교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러시아 몽골계 자치공화국인 부리아트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Ulan-Ude)'는 '이르쿠츠크'와 함께 러시아 바이칼호수에 인접해 있는 동시베리아의 정치•문화•경제를 대표하는 인구 약 30만의 도시이다.

■ 영월박물관협회 <2015년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선정

(사)영월박물관협회(회장 오석환)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주최하는 지역의 우수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발굴 확산을 통한 대국민 사회통합 및 다문화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에 지난 17일에 선정되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문화 이야기 보따리> 사업은 영월 박물관 인프라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스토링텔링 • 문화 • 예술 • 교육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영월군 관내 15개 사립박물관 •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문화 이해 및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 제3회 영월국제박물관포럼 조직위원회 참석

제3회 영월국제박물관포럼 제1차 조직위원회(위원장 지건길)가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박선규 영월군수를 비롯하여 오석환 영월박물관협회장, 고명진 영월박물관협회 부회장, 군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국제현대미술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한국문화연합회 <201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국제현대미술관(관장 박찬갑)과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은 각각 한국문화연합회 <201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었다. 국제현대미술관은 <2015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향유의 기회와 아울러 전 과목을 이수한 수료생은 문화동아리 모임과 문화예술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은 <폐광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제작>으로 문화나눔봉사이다. <201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한다.

■ 2015년 단종제 영월박물관 홍보관 운영

영월박물관협회는 2015년 단종제 행사 기간 동안 영월박물관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기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벗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박물관 룰렛 게임을 통하여 영월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일대일 홍보를 하였다. 또한 2015년 스탬프투어맵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월 박물관 관람 방법을 제공하였다.

■ 호야지리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 전시 <독도! 지도로 펼쳐 사진에 담다>

호야지리박물관(관장 양재룡)은 동아지도(대표이사 안동립)의 협찬을 받아 <독도 특별전_지도전과 사진전> 공동전시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시한다. 호야지리박물관 소장 한국령 독도에 관한 지도 60 여점과 동아지도의 안동립 사장이 직접 10년여에 걸쳐 촬영한 독도 사랑이 담긴 사진작품 56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시회는 지도전시를 통해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간 국경선이 그려진 「일청한 군용정도, 1895년」, 1897년 일본지지 검인정 교과서 지도 등과 함께 실제 오늘 날 세계는 어떻게 독도가 일본 영토화로 편향되고 있는가? 를 보여주는 세계지도의 현주소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독도사진전은 작가 안동립의 독도 사랑 세계를 한국인의 서정적 시각으로 사진에 담아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제작한 「독도 식생지도」는 유산적 가치를 가지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호야지리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으로 기획되었고, 전시 기간 중 5월 1일 원주 중앙초를 시작으로 양재룡 관장의 '독도 특강'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길 위의 인문학'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김포, 평택, 영주, 여주, 제천 등지의 초. 중학교 11개교에서 19회의 특강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독도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 영월곤충박물관 이전 개관식

영월곤충박물관(관장 이대암)는 지난 4월 22일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로 이전하였다. 2002년 5월 폐교인 북면 문곡리 문포초교를 리모델링해 처음 문을 연 영월곤충박물관은 그동안 44만 3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영월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3년 만에 동강생태공원 내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로 이전한 영월곤충박물관에는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멸종위기종인 상제나비, 비단벌레, 물장군 등 3천 여점의 곤충 표본과 왕잠자리 유충, 물방개, 장수풍뎅이 등 20여종의 살아있는 곤충이 전시되었다. 또한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나비 날개의 비밀_나비 날개 확대 사진전>는 관장이 광학현미경으로 직접 찍은 것으로 나비 날개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대암 관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민속악기박물관 <2014년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우수사례 선정

세계민속악기박물관(관장 이영진)는 지난 4월 16일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2014년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장을 수여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 명은 "안녕 아시아! 악기야 놀자" 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악기체험과 학습을 통해 낯선 소리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악기합주(인도네시아의 가믈란 및 앙클룽)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고취함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는 2012년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기자박물관으로써 미디어의 세계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세대 간, 계층 간 교류 활동 확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중지와멀티미디어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을 만듦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역량강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영화관과 박물관 교육장•전시장을 다양한 마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구정(설날)과 추석에는 가족사랑을 담는 가족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조사연구와 졸업생을 위한 무료앨범 제작, 시니어사진신문 만들기, 추억의 영화상영 등 문화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 <뱃말이야기>를 설립하여 마을의 전통 농악대로 그 역사를 잇고 마을주민들과의 공동체 생활 확대를 위한 <광전농악보존회>를 건립하여 지역축제 참여 등 단순 농촌마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확대 등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 마을로 변화 중에 있다.

■ 자료 소개

고명진, <아! 나의 조국>

1987년 6월 26일 부산 6.26 평화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시 문현 로터리에 집결한 시민, 학생들의 시위대는 다탄두최루탄을 발사하며 가두 시위를 저지하자 한 시민이 웃옷을 벗고' 최루탄을 쏘지마라" 며 경찰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이 사진은 1999년 AP통신사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진에 선정되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재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4·13호헌조치」를 발표 후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교내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리는 등 전두환 정권의 잔인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이끌어 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정점으로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제6공화국이 탄생하였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사진전2>, 근현대사협력망사업 선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우리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기획했으며, 개막식 당일에는 전시되는 사진 42점의 촬영 사진가 7인 중 생존 다큐사진가 6인(고명진, 김녕만, 나경택, 전민조, 정범태, 황종건)을 초청해 좌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전시는 4월 13일~7월 5일까지 무료 관람이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협력망사업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을 비롯한 8개관이 선정되었다.

■ 공지사항

- 한국민화뮤지엄(조선민화박물관 강진 분관) 개관전
  <채용신 삼국지연의도 특별전> 5월 2일 ~8월 말(2층 기획전시실)
  < 모란특별전> 5월 1일 ~10일(시문학파기념관)
- 호야지리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 독도특별전시회> 5월 1일 ~ 6월 30일(지오토피아관)
- 인도미술박물관: 박여송 종이조형전「사람들」5월 5일 ~ 16일(원주한지테마파크 기획전시실)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특별기획전_동심, 내일이 사는집>
  5월 1일 ~ 5월 30일(특별전시실)